

leet 분석 23주차 - 해설

- 어려운 글을 읽어버릇하고,
어려운 글을 읽으며 생각해 버릇할 때,
어려운 글일지라도 잘 읽을 수 있다.

활용 방법

1. 실전처럼 시간 재고 풀기
→ 한 지문에 10~13분
2. 채점 전 답을 고른 사고과정 점검.
3. 채점 후 스스로 지문 분석
→ 내용정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독해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 분석.
4. 스스로 문제 분석
→ 근거 찾기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답이 나왔을
까에 초점.
5. 해설지를 읽으며 자신의 독해 과정과 비교·보완.

1일차 지문 해설

20세기 초반 미국의 법률가들은 법철학이 실무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학문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20세기 초반 미국의 법률가)이 보기에 법철학자들은 대개 권리나 의무의 본질에 대한 막연한 이론을 늘어놓기만 할 뿐, 그것(법철학)이 구체적인 법률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법률가들은 법철학이 막연한 이론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 법률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아 실무에서 의미가 없는 학문이라 평가했습니다. 이후 이런 통념을 강화하는 얘기가 나오지 반박하는 얘기가 나오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미국 법률가들이 법철학이 구체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실무에서 의미없다 주장함을 납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호펠드의 이론은 당대의 통념(법철학은 실무에 쓸모없다)을 깨뜨린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호펠드의 이론은 법철학은 실무에 쓸모없다는 이론을 깨뜨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철학이 실무에 쓸모 있음을 주장하는, 앞서 제시된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글이 진행될 것임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호펠드)는 다의적인 법적 개념의 사용으로 인해 법률가들이 잘못된 논증을 하게 되고 급기야 법적 판단을 그르치기까지 한다고 지적한 뒤,

호펠드는 다의적 법적 개념의 사용으로 인한 잘못된 논증 + 법적 판단 그르침이라는 이유로 법철학이 실무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법철학을 통해 다의적 법적 개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 문제(다의적인 법적 개념의 사용)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무언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권리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제시한 다의적인 법적 개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법철학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가 무언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권리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의적 법적 개념의 사용을 해소(제시된 문제 상황)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 문장이 의미하는바 분석, 권리 개념 명확히(문제 해결) 정리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호펠드)는 모든 권리 문장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호펠드는 모든 권리 문장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앞서 제시한 조건 중 하나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범주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가들이 ‘사람에 대한 권리’와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물건에 대한 권리’도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에 대한 권리와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도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하는 권리일 뿐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법철학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념적으로 구별해서 이해한 권리(사람과 물건) 모두 사람에게 대한 것이므로 예외로 취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호펠드)는 법률가들이 권리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지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권리와 그 상대방의 지위를 나타내는 네 쌍의 근본 개념을 확정할 수 있었다

법률가들은 권리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지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고, 이를 통해 권리와 상대방의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권리 개념을 명확히 해 법철학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주장과 같은 범주임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법적인 권리 분쟁은 이들 개념을 이용하여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법적인 권리 분쟁은 네 쌍의 근본 개념을 이용하여 진술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쌍의 근본 개념이 모든 법적 권리 분쟁을 진술할 수 있다고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이어갔으면 충분합니다.

각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법적 권리 분쟁을 진술할 수 있는 네 가지 근본 개념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 간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까지 이해한다는 인식으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대방은 그 행위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 요구, 상대방은 행위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제시된 그대로 청구권의 개념(상대방에게 특정 행위 요구, 상대방 의무 짐)을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둘째, 자유권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 행위를 요구할 청구권이 없다.

자유권은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행위를 요구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제시된 그대로 자유권의 개념(특정 행위 따르지 않을 권리)을 이해하며 청구권과의 관계(내가 자유권이 있으면 상대는 청구권이 없음)까지 연결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셋째, 형성권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의 처분이 있으면 곧 지위 변동을 겪게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상대방이 현재 점하고 있는 지위, 곧 피형성적 지위인 것이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 자체가 상대가 상대방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상대방의 지위 = 피형성적 지위입니다. 형성권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넷째, 면제권은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자신의 지위 변동을 겪지 않을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처분을 할 만한 형성권이 없다.

면제권은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자신의 지위 변동을 겪지 않을 권리이며 이 경우 상대방은 형성권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지위를 변동시키는데 면제권은 상대의 처분으로 자신의 지위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면제권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독해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멘트

지금 네 가지 권리의 개념과 개념 간 관계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시된 문제 상황(다의적 법적 개념의 사용)에 대한 해결책(권리 개념 명확히)에 직결된 정보입니다. 독해 시 정확하게 확보하고 가겠다는 인식하에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호펠드는 이러한 근본 개념들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와 관계적 특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리 문장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완성하고 있다.

호펠드는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 총 네 가지의 근본 개념의 차이와 특성을 통해 권리 문장의 문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본 개념 간의 차이와 특성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답(법철학을 통한 다의적 법적 개념의 사용 해소)을 보일 것임을 인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호펠드)에 따르면 청구권이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비해, 형성권은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통제하는 결과 그의 행위에 대한 통제도 이루게 되는 차이가 있다.

제시된 그대로 이해합시다. 청구권은 상대의 행위를 직접 통제합니다. 그런데 형성권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개념으로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통제해 행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시된 청구권과 형성권의 개념을 확보한 상태로 둘의 차이를 이해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권이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인 주장이라면 자유권은 그러한 주장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자유권이 있으면 상대방은 청구권이 없음이 앞서 제시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청구권이 상대를 향한 주장이면 자유권은 주장으로부터의 해방이랍니다. 앞서 제시된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성권이 상대방과의 법률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이라면 면제권은 그러한 처분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볼 수 있다.

형성권과 면제권 역시 면제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형성권이 없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성권이 적극적 처분이면 면제권은 처분으로부터의 해방이랍니다. 이 역시 앞서 제시된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tip - 다른 말 같은 뜻

독해 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뜻으로 인지하지 않고 파편적으로 독해할 시 파편적인 독해, 흔히 말하는 날림 독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같은 범주라는 것을 인식해야 이어지는 지문 독해 시 느끼는 부담이 줄고, 문제풀이 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 같은 뜻을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한다면 다른 문단에서 앞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같은 범주로 잡아가며 체감 정보를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단일한 권리 관계 내에서 볼 때 만일 누군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자유권을 가질 수 없고, 만일 누군가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면제권을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유권자의 상대방은 동시에 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면제권자의 상대방 또한 동시에 형성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역시 앞서 제시된 내용을 재진술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권이 있으면 상대방은 자유권을 가질 수 없고(역도 성립), 형성권을 가지면 상대방은 면제권을 가질 수 없답니다(역도 성립). 앞서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며 독해했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독해했다면 이렇게 정리된 부분에서라도 필히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문장 내 이해

현 트렌드는 이해 없이 단순 서칭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문장 내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 내포된 뜻이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독해 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호펠드는 이러한 권리의 문법에 근거하여 '권 대(對) 리덤' 사건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법철학 이론도 법률 실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호펠드는 권리의 문법 = 앞서 제시된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 네 가지 권리의 관계를 통해 권 대 리덤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해 법철학이 법률 실무에 기여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류를 어떻게 지적했는지 파악한다는 인식으로 독해를 이어갑시다.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육류 생산업자인 원고에게는 피고가 속해 있는 도축업자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고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객들에게 원고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함으로써 원고의 자유에 간섭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판결에서는 원고가 자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제시된 그대로 예시 상황을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호펠드의 분석에 따르면, 판사는 원고에게 자유권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곧바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정작 이 자유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호펠드에 따르면 원고에게 자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자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즉 개념 간 관계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지 않아 자유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숙고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 주장합니다.

호펠드의 희망은 이렇듯 개념의 혼동과 논증의 오류가 정의와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법률가들의 성찰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데 자신의 연구가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호펠드)의 작업은 훗날 판례 속의 법적 개념과 논증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미국 법학의 큰 흐름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은 무난하게 호펠드의 의의를 제시하며 지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므로 제시된 그대로 파악하고 독해를 마무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총평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이라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제시되는 네 가지 근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계까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네 가지 근본 개념을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별다른 스킬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제시된 개념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그를 통해 이해한다는 기본적인 교묘한 방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지문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개념 확보 → 확보된 개념을 통한 이해를 점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일차 문제 해설

1. 위 글에 나타난 호펠드 법철학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답 ③

지문에서 권리 문장의 재구성을 밝힌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의 우선 순위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권리들 간에 우선순위가 발생하는 근거를 해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호펠드는 근본 개념들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와 관계적 특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리 문장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완성했습니다. 즉 권리 문장에 사용되는 권리 개념의 다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 호펠드는 법률가들이 '사람에 대한 권리'와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물건에 대한 권리'도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통념적 구별이 가질 수 있는 개념적 오류를 비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 호펠드는 '권 대(對) 리덤' 사건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하며 원고에게 자유권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곧바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자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권리 문장을 사용한 법률가들의 추론에 논리적 비약이 내재해 있음을 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 호펠드는 모든 법적인 권리 분쟁은 권리 개념을 이용하여 진술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권리 개념 간 특성을 반영한 일반 이론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코멘트

지문에서 제시된 호펠드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2. 두 사람 사이의 단일한 권리 관계에서 볼 때, **권리의 문법**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답 ②

우선 자신에게 청구권이나 형성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지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또한 만약 자유권이나 면제권이 있다면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지위 변동을 겪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상대방은 청구권이나 형성권을 가질 수 없고, 이로 인해 자유권이나 면제권이 있는 사람은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즉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동시에 그는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는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청구권의 경우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 행위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이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③ : 청구권을 가질 경우 상대방은 자유권을 가질 수 없고,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면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이 일정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④ : 만약 자유권을 갖지 않으면 청구권을 가진 상대로 인해 의무를 가질 수 있고, 면제권을 갖지 않으면 형성권을 가진 상대방로 인해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어떤 권리를 갖지 않으면 동시에 그는 일정한 의무를 가진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⑤ : 만약 상대가 청구권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유권을 가지는 즉 의무를 갖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형성권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은 면제권 가져 의무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갖지 않으면 상대방이 일정한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있다.

- 코멘트

제시된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면제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3. 호펠드의 근본 개념들이 <보기>의 상황에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답 ④

<보기>에서 C는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는 지위 임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심판이라는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면제권이 있는 것으로 C는 D에 의해 판정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을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보기>에서 A와 B는 정당한 몸싸움을 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몸싸움이 정당하다는 것은 A가 B에게 자신에게 몸싸움을 하지 말라고 주장할 권리 = 청구권이 없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 심판인 C의 판정을 모두 따라야 하므로 C는 모두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C의 판정에 따라야 할 뿐이지 C에게 자신이 무엇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A는 C에게 그의 판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알려 줄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③ : 심판인 C의 판정을 모두 따라야 하므로 C는 모두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는 선수를 퇴장(지위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B는 C의 판정만으로 퇴장당하게 되는 피형성적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⑤ : D는 감독이므로 선수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E가 시합에 나가지 않을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코멘트

선수, 감독, 심판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근본 개념을 적용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약간의 상식적 추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일차 지문 해설

많은 나라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요소 투입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요소 투입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을 모색했다. 배경지식이 없다면 요소 투입형 성장이 무엇인지 혁신 주도형 성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다면 설명이 나올 것이란 인식을 가지고 우선 있는 그대로 요소 투입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변화했다는 정도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모델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 모델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로는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 등이 있다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지역적 차원에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대표적인 모델은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입니다. 병렬적으로 제시한 세 가지 모델이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 모델의 '중심 개념'이라고 지문에서 대놓고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병렬적으로 핵심 개념을 설명할 것임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계 기업, 특정 영역의 연관 기관 등이 유사성이나 보완성 등으로 서로 연결된 집단으로 정의된다.

클러스터의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연계 기업, 기관의 유사성이나 보완성으로 연결된 집단입니다. 즉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유사성이나 보완성을 통해 연결된 것이 클러스터라는 정의를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다면 충분합니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된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된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이어가야 합니다.

즉 기업이나 산업의 전·후방 부가 가치 네트워크의 특성을 먼저 고찰하고, 다음으로 전문 기능, 기술, 정보 등을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을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규제 기관의 역할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업이나 산업의 부가 가치 네트워크 특성 → 전문 기술이 있는 서비스 기관 → 정부 혹은 규제 기관의 역할을 찾아야 함을 정리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다면 충분합니다.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사례인, 전통적인 포도 재배 지역에 형성된 ㉠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의 성공적 사례 즉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예시와 앞서 제시된 클러스터의 정보를 연결하며 독해를 진행한다는 인식하에 독해를 이어가야 합니다.

포도 재배는 이 지역의 농업 클러스터와, 와인 양조는 식품업 및 관광업 클러스터와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와인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지역 대학, 지방 정부, 지역 상·하위의 특별 위원회와도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포도 재배 클러스터는 농업, 와인 양조는 식품 관광업과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고, 와인학 과정을 개설하는 지역 대학, 지방 정부 지역 위

원회와도 연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계 기업, 특정 영역의 연관 기관 등이 유사성이나 보완성 등으로 서로 연결된 집단으로 정의되었는데, 해당 예시를 독해하며 클러스터의 예시에 부합한다는 것을 연결 지으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지문을 읽을 때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eet나 수능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필한 지문들은 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으면 그렇게 제시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문제를 위한 글인 지문의 특성상 그 이유는 내용 이해 그리고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제도, 문화, 규범, 분위기 등의 상부구조와 교통망이나 통신망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 및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 정부 등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지역혁신체계의 정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체계는 상부구조, 물리적 하부구조, 사회적 하부구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때 지문에서 상부구조, 물리적 하부구조, 사회적 하부구조를 구분해서 제시했습니다. 우리 역시 상부구조, 물리적 하부구조, 사회적 하부구조를 구분해주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돌아올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실전에서 우리가 지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실전이 아니라도 각각의 구조에 해당하는 예시를 모두 '외워서' 독해를 진행한다는 것은 몇몇 타고난 천재들 외에는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각 구조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내용 이해를 고려할 때도 절대 간과하며 넘어갈 부분이 아니지만,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물어볼 때 다시 돌아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알아보기 편하게 간단한 표시 정도를 해놓고 독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상·하부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를 말한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는 상·하부 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가 지역혁신체계입니다. 정의 자체는 상·하부 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로 어렵지 않으니 앞서 말한 것처럼 각각의 구조를 구분하는 인식하고 정의를 파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역혁신체계는 혁신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적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발전해야 한다.

지역혁신체계는 사회적 하부구조와 상부구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발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역혁신체계에서의 혁신 주체가 사회적 하부구조라는 점과 사회적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연결이 핵심임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하부구조는 혁신 주체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의 혁신 성과물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하부구조는 혁신 주체들을 유인하고 성과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물리적 하부구조는 교통망이나 통신망 등이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다면 교통망이나 통신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 스웨덴 시스타 과학 단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지의 특징은 활성화된 산·학·연 협력, 대·중소 기업 간 협력 체계, 지방 정부의 도로 등 기반 시설 투자, 경쟁 기업 간

활성화된 공동 연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스웨덴 시스타 과학 단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역시 산.학.연 협력, 대.중소 기업 간 협력 체계, 지방 정부의 도로 등 기반 시설 투자, 경쟁 기업 간 활성화된 공동 연구라는 점을 통해 앞서 제시된 지역혁신체계의 특징인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상.하부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자본은 국가나 지역, 개별 집단 등 공동체의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정, 협력,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등을 뜻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

사회자본은 공동체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정, 협력,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를 말하며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 추구를 위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하는 조건을 말한답니다. **사회자본이 참여자 간 협력을 통한 공유 목표 추구라는 정도를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1980년대 이후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의 달성이 사회자본의 내용과 질에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이 사회자본의 내용과 질에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답니다. 우리 역시 사회자본의 내용과 질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과 관련있다는 정도를 납득하고 독해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영세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㉔ 일본 오타구 나카마 공동체인데**, 나카마 공동체란 동업의 친구나 서로 잘 아는 관계라고 불릴 수 있는 성격의 집단을 뜻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영세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의 공동체인데 친구나 서로 잘 아는 관계 = 즉 **친밀한 성격의 집단을 지칭한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중업원 10인 이하인 이 지역의 영세 기업들은 신뢰·협력·경쟁의 원리에 기초(사회자본 원리에 기초)하여 그물망처럼 얽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전문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친밀한 성격의 집단들 = 영세 기업들은 사회자본에 근거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낸답니다. 사회자본의 예시로 영세 기업들 간 공동체 구성으로 성과를 낸다는 점이 제시되었음을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문장 내 이해
현 트렌드는 이해 없이 단순 서칭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문장에서도 '기업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합니다.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의 개념은 모두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은 모두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병렬적으로 제시된 세 가지 개념의 공통점으로 네트워크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에서 네트워크는 구성 요소들 간 연계 체계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부가가치나 혁신성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된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에서 네트워크는 구성 요소간 연결 그 자체, 지역의 부가가치와 혁신성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에서는 네트워크의 의미를 갖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빠진 게 사회자본입니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에서의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정리된 뒤(연결 그 자체, 원동력) 사회자본에서 네트워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비교 대조 쌍
실제 독해 시 a와 b가 대조되는 전개 방향이라면 a를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a이후 제시되는 b를 읽을 때는 a와의 공통점과 구분되는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교·대조 쌍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되기 마련이고, 지문 독해 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한다면, 지문 이해는 물론이고 문제 풀이까지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인 조정, 협력, 신뢰, 규범의 호혜성의 정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네트워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하다.**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네트워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앞서 제시된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와는 구분되는 사회자본의 특징입니다. **사회자본은 사회자본 구성 요소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네트워크보다 구성 요소들의 질적 수준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때 **사회자본**은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에서 구성 요소들 간 관계를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인 네트워크에서 구성 요소들 간 관계를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답니다. 앞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에서는 **네트워크를 혁신을 위한 원동력으로 취급했는데 사회자본은 촉매로 취급한다는 차이를 잡은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즉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네트워크에서 높은 질적 수준을 지닌 사회자본이 형성되면, 이들 네트워크의 참여자 수는 증가하며 교류 빈도 또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는 강한 유대감 속에서 성장하면서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한 집합적 상승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네트워크에서 높은 질적 수준을 지닌 사회자본이 형성되면 네트워크 참여자 수는 증가하며 빈도 또한 높아져 지역발전을 위한 상승효과를 창출한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마무리하면 됩니다.

총평
거시적인 독해 태도를 잡기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병렬적으로 제시된 세 가지 중심 개념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한 뒤, 이후 제시되는 비교 대조에 맞춘 독해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독해, 문제 풀이 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거시적 독해 태도(병렬적, 비교 대조) 혹은 미시적(문장 자체에 대한 엄밀함) 중 부족한 점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2일차 문제 해설

1.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답 ④

지역 발전에 있어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네트워크가 원동력 역할을, 사회자본이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선지

① : 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계 기업, 특정 영역의 연관 기관 등이 유사성이나 보완성 등으로 서로 연결된 집단을 의미하고, 강한 유대감 속에서 성장합니다. 즉 클러스터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나 산업의 보완적인 상호 연관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 지역혁신체계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상·하부구조 간 네트워크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지역혁신체계는 기술과 지식의 창출과 응용을 위한 혁신 지향적 연결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⑤ : 지역적 차원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모델의 변화를 가져올 때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 모델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입니다. 즉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은 지역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코멘트

병렬적으로 제시된 세 중심 개념 각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위 글에 따라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④

<보기>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중앙 정부의 지방 분권법 제정으로 중앙 정부가 교통, 통신망을 확충하고 과학 기술 두뇌가 집적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한 것이 도시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1980년대 이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물리적 하부구조는 교통망이나 통신망 등을 의미하는데 1960년 최초 구상은 산, 학, 연 혁신 주체들이 모여 상호 작용을 함으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즉 1960년 최초 구상은 물리적 하부구조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 1960년 이전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낙후 도시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1960년 이전 사회자본이 기술 혁신을 촉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 1960년 이전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낙후 도시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1960년 이전 클러스터 기반이 형성된 도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⑤ : <보기>에 근거하면 1980년 이 중반 이후 지방 정부가 산, 학, 연 관계의 조성을 촉진했고 민간에서 민, 관 협력 구조를 설립해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즉 1980년 중반 이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을 조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코멘트

<보기>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점적이었던 문제입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클러스터 = 클러스터 예시

㉡ : 스웨덴 시스타 과학 단지 = 지역혁신체계 예시

㉢ : 일본 오타구 나카마 공동체 = 사회자본 예시

답 ⑤

㉣은 기업들의 신뢰, 협력, 경쟁 원리에 기초한, 즉 기업들 간 소통 네

트워크 강화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은 포도 재배는 농업 클러스터, 와인 양조는 관광 클러스터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클러스터가 기능화된 여러 클러스터로 구성된 복합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② : ㉡은 전통적인 포도 재배 지역에 형성된 클러스터이고, 포도 재배를 활용한 클러스터 형성을 보여줍니다. 즉 전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③ : ㉢은 지방 정부의 도로 등 기반 시설 투자가 하나의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물리적 하부구조(통신망, 교통 등)를 강화하는 지방 정부의 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④ : ㉣은 활성화된 산·학·연 협력, 대·중소 기업 간 협력 체계가 있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경쟁 기업들 간에도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어 지역 혁신을 위해 상·하부구조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코멘트

병렬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이해함과 동시에,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3일차 지문 해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물리학은 크게 변모했다.

20세기 들어서 물리학은 크게 변모했답니다. 지문의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니 물리학의 변모, 즉 물리학의 변화에 대한 얘기 정도를 가볍게 인식하고 독해를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글에서 변화는 항상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염두 정도를 해두고 있는 그대로 이 둘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를 핵심으로 인식하고 독해를 이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예는 과학의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의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다.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은 모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의 관점에서는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답니다. 즉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한 과학의 진보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차이를 핵심으로 인식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1905년 발표된 특수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 같은 물리학의 개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들을 고쳐 쓰게 만들었다.

특수상대성이론으로 생긴 변화는 시공간에 대한 물리학의 개념, 물리학의 공식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니 특수상대성이론으로 인해 시공간에 대한 개념, 공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상대 운동에 관한 유효한 공식으로 승인되었던 속도의 덧셈 법칙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칙은 시속 15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시속 150km로 달리는 옆 선로의 기차를 볼 때 그것이 시속 300km로 도망가는 듯 보인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지만,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덧셈 법칙은 정확하지 않다.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에 대한 변화의 예시로 속도의 덧셈 법칙이 제시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사실을 설명하지만,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덧셈 법칙은 정확하지 않다네요. 그렇다면 특수상대성이론에 근거할 때 기존의 공식들이 부정확하다는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전물리학이 새 이론(특수상대성이론)에 의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특수상대성이론으로 여러 공식이 변화했지만, 고전물리학의 이론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을 넘어 공통점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변화를 넘어 유지되는 점까지 확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이어갑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전물리학의 식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수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도 고전물리학의 식들이 대부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한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독해를 이어가면 충분합니다.

예컨대 앞에서 말한 기차가 만일 초속 15만km로 달린다면 새 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계산에 뚜렷한 차이가 나겠지만,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에서도 두 계산의 결과는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보여 준다.

예시를 통해 대부분의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 = 시속 정도에서도 둘은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보여주고, 초속 15만km 정도의 속도면 두 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즉 앞선 내용과 예시를 연결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 있다는 정도를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지문을 읽을 때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eet 나 수능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필한 지문들은 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줬으면 그렇게 제시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문제를 위한 글인 지문의 특성상 그 이유는 내용 이해 그리고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고스란히 포섭하는 반면, 고전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중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제한되는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재진술입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의 설명을 포섭하고 고전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의 영역 중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이라는 조건하에 유효하답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제시해준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을 대놓고 정리하며 대조해주고 있으니 최소한 여기서는 필히 차이점을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진짜 정보량이 많거나, 많다고 느끼거나

지금 앞서 제시된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관계를 거의 그대로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앞 내용을 날려 읽고, 각 부분을 파편적으로 읽으면 어떨까요? 정보량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겠죠?. 실제로 이 지문은 제시된 정보량 자체는 많이 없지만, 핵심을 담겨 읽으며 독해하지 않고, 재진술을 인식하지 않으며 파편적으로 독해를 이어나가면 상당히 정보량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정보량 자체가 많아서 어떻게 읽든 정보량이 많은 지문도 있지만, 이런 지문처럼 체감 정보량과 실제 정보량이 다른 경우는 평소 독해 습관에 따라 느껴지는 정보량 차이가 상당할 것 입니다.

이렇게 볼 때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면서 설명과 예측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물리학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지문의 핵심은 각각의 이론이 가져온 변화와 그때 과학의 진보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며 설명과 예측의 영역을 확장시킨 물리학(과학)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즉 핵심에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필히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양자역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제 특수상대성이론이 아닌 양자역학의 경우를 제시하겠네요. 핵심인 각각의 이론이 가져온 변화와 그때 과학의 진보 양상이 차이를 잊지 않은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1910년대에 물리학자들은 원자에 속한 전자들의 동역학적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고전물리학으로는 그런 설명이 불가능했다. 결국 물리학자들은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삼아 양자역학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문제의 현상에 대

한 정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원자에 속한 전자의 동역학적 상태를 고전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하에 양자역학을 구축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양자역학은 특수상대성이론과 달리,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하에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을 잡고 독해를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tip - 비교 대조 쌍

실제 독해 시 a와 b가 대조되는 전개 방향이라면 a를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a이후 제시되는 b를 읽을 때는 a와의 공통점과 구분되는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교 · 대조 쌍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되기 마련이고, 지문 독해 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한다면, 지문 이해는 물론이고 문제 풀이까지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자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전자의 운동은 고전물리학으로 설명되는 반면, 원자 안의 전자를 설명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원자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전자의 운동은 고전물리학, 원자 안 전자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한답니다. 앞서 둘은 양립 불가한 전제로 구성되었다했고, 그에 맞게 둘의 차이를 대놓고 지문에서 제시해주고 있으니 우리도 원자 구속 없이 자유로운 운동은 고전물리학, 원자 안 전자는 양자역학이라는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자 안의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면 자유로운 전자가 되는데, 마치 그렇게 풀려나면서 양자역학의 영토로부터 고전물리학의 영토로 건너오는 꼴이었다.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전제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둘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양자역학은 원자 안 전자, 고전물리학은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전자)을 다시금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양자역학의 식들이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서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양립 불가능한 전제를 토대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양자역학이 고전물리학이 설명해 온 현상들은 설명하지 못하네요. 이 역시 고전물리학을 포섭한 특수상대성이론과의 차이점임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의 등장이 물리학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양자역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당구공의 충돌 같은 현상이 고전물리학 고유의 영역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이 기존의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한 것에 힘을 못쓰는 상황을 당구공의 충돌 같은 현상이라는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 부분을 예시를 통해 재진술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앞부분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독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80년대부터 발달한 혼돈이론의 경우는 두 이론(양자역학, 고전물리학) 간 관계의 또 다른 면을 보여 준다.

혼돈이론의 경우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 간 관계의 또 다른 면을 보여 준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을 보여주는지 파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이어갑니다.

혼돈이론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살피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라는 개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혼돈이론이 고전물리학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혼돈이론이 살피는 것이 양자역학에서는 규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돈이론은 고전물리학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돈이론에 대한 '조건'을 보조사로 통해 대놓고 강조해주고 있으니 필히 인식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조건은 답을 결정한다.

많은 학생들이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선지에 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문에서도 혼돈이론은 고전물리학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혼돈이론에 대한 조건을 파악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정보량이 많은 고난도 지문에서 이렇게 '조건'이 제시됐을 때 정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해를 계속 진행한다면 지문에서 갑자기 상충된다 느끼는 부분이 나오고, 문제 풀이에서 낚시 선지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조건도 전제, 예외를 만드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선 딱 하나 '조건'이 나오면 생각을 정리한 뒤, 독해를 진행한다는 독해 습관을 갖추시길 권장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절묘하게 서로 연결된다.

양립 불가능한 전제하에 있는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이 절묘하게 연결된답니다. 분명히 양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에서 막 풀려나오는 순간의 전자에 대응되는 극한 조건을 가정하면 신중하게도 양자역학의 식은 고전물리학이 내놓는 식과 일치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각기 다른 현상 영역을 맡아 설명하고 있는 두 이론이 극한 조건 아래 두 영역의 경계에서 만나 때 끄러운 이음매를 만들며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각기 다른 전제를 토대로 삼고 있지만 극한 조건 아래 경계에서 만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극한 조건 하에 두 이론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은 물리학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부분들로 자리를 잡는다.

앞서(특수상대성이론 부분)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지문의 핵심은 각각의 이론이 가져온 변화와 그때 과학의 진보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은 어느 한쪽이 포섭당하는 것이 아닌 상보적인 부분으로 물리학을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만일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졌거나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20세기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리학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해진 사실은 ㉠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양자역학과 연결되지 못했다면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분명히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된답니다. 즉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었거나, 연결되지 못했다면 양자역학의 등장을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장 내의 뜻을 정확하게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문장 내 이해

현 트렌드는 이해 없이 단순 서칭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문장 내에서 이해해야 할 부

분, 내포된 뜻이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독해 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대한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가지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고전물리학, 특수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의 관계(특수상대성이론은 포섭, 양자역학은 상보)가 이해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다면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총평

비교 대조에 대한 독해 태도가 핵심적인 지문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고전물리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관계 /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의 관계를 비교 대조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시적으로 조건에 대한 인식과 보조사 등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동반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지문 독해나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비교 대조에 대한 독해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차 문제 해설

1.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답 ⑤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의 예시에서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에서도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계산 결과가 유사함을 제시해줬습니다. 즉 음속과 비슷한 속력의 운동은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 중 어느 것으로 설명하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혼돈이론은 고전물리학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혼돈 현상을 설명함에 양자역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 원자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전자의 운동은 고전물리학으로 설명되는 반면 원자 안의 전자를 설명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필요합니다.

③ : 고전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중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조건으로 제한되는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고전물리학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이 특수상대성이론에서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 특수상대성이론은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을 고쳐쓰게 했고, 그 예시로 속도의 덧셈 법칙이 제시됩니다. 즉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속도의 덧셈 법칙은 고전물리학에서와 동일한 식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코멘트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의 비교 대조,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의 비교 대조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위 글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

답 ④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지만 두 이론은 극한 조건 아래 두 영역의 경계에서 만나 매끄러운 이음매를 만들며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면 두 이론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양자역학의등장이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는 판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고전물리학이 원자에 속한 전자들의 동역학적 상태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양자역학이 등장했지만, 단순히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었다면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과학의 진보를 평가할 때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옛 이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면서 설명과 예측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물리학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확언**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물리학의 진보는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두 이론이 극한 조건 아래 두 영역의 경계에서 만나 매끄러운 이음매를 만들며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끄러운 연결로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⑤ :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졌거나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20세기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 것은 고전물리학은 설명하지 못한 원자에 속한 전자들의 동역학적 상태를 설명한 양자역학이 등장했다 해도 그것이 과학의 진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즉 옛 이론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새 이론이 해결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과학의 진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코멘트

선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3. 위 글의 관점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분석 : 갈릴레오 법칙은 뉴턴 역학 이전에 존재, 뉴턴 역학으로 갈릴레오 법칙 성립 설명 가능. 뉴턴 역학 엄격하게 적용하면 옳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간주 가능.

⇒ 뉴턴 역학이 갈릴레오 법칙을 포섭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관계와 유사)

답 ①

특수상대성이론은 특정 조건에서 훌륭한 근사를 보여주는 고전물리학의 식을 포섭합니다. 이와 같이 <보기>에 근거할 때 뉴턴 역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갈릴레오 법칙이 옳지 않지만,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통해 갈릴레오 법칙을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② : 뉴턴 역학과 갈릴레오의 법칙은 유효한 범위가 잇닿아 있는 것이 아닌 뉴턴 역학이 갈릴레오 법칙을 포섭하는 개념입니다.

③ : 갈릴레오 법칙은 g 를 상수로 간주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구간에서는 일정한 상수로 간주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뉴턴 역학은 갈릴레오 법칙을 포섭해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 혼돈이론은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을 연결하는 것이 아닌 고전물리학 토대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갈릴레오의 법칙은 뉴턴 이전의 역학과 뉴턴 역학을 연결하는 이음매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⑤ : 갈릴레오 법칙으로 뉴턴 역학을 근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뉴턴 역학으로 갈릴레오 법칙을 특정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이론이 서로 상충하는 이론적 전제 위에 구축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코멘트

지문에서 제시된 특수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의 비교 대조,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의 비교 대조가 이루어진 상태로 <지문>에서 제시된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4일차 지문 해설

음악에서 개별적인 음 하나 하나는 단순한 소리일 뿐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음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음들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음은 단순한 소리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지문의 시작에 음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시했으니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독해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맥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글의 핵심으로 인식한 상태로 독해를 이어야 합니다.

이(맥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음정과 화음, 선율과 화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맥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라는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음정, 화음, 선율과 화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역시 핵심(맥락 형성)을 알기 위해 음정, 화음, 선율과 화성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독해를 시작해봅시다.

떨어진 두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한다.

음정은 떨어진 두 음의 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을 제시해주면 최소한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독해를 진행해야 하니 음정이 떨어진 두 음의 거리라는 것은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이어갑시다.

음정의 크기(1도~8도)와 성질(완전, 장, 단 등)은 두 음의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음정의 크기와 성질은 두 음의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배경지식이 없다면 1도~8도, 완전, 장, 단 등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체적 수치보다는 우선 음정의 크기와 성질이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음정은 세 가지, 곧 **완전음정**(1도, 8도, 5도, 4도), **불완전음정**(장3도, 단3도, 장6도, 단6도), **불협화음정**(장2도, 단2도, 장7도, 단7도 등)으로 나뉜다.

음의 크기와 성질에 따라 완전음정, 불완전음정, 불협화음정으로 음정이 구분된답니다. 이때 각각의 음정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전부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완전음정, 불완전음정, 불협화음정이 있다는 정도를 기억하고 구체적인 것은 물어보면 돌아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돌아올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실전에서 우리가 지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실전이 아니라도 이렇게 구체적 예시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경우에 각각의 예시들을 모두 '외워서' 독해를 진행한다는 것은 몇몇 타고난 천재들 외에는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된 구체적 예시(혹은 수치)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물어볼 때 다시 돌아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알아보기 편하게 간단한 표시 정도를 해놓고 독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음의 중복'인 **완전1도가 가장 협화적**이며, **완전4도 <도-파>**는 **완전5도 <도-솔>**보다 덜 협화적이다.

한 음의 중복인 완전1도가 가장 협화적이며 완전4도는 완전5도보다 덜 협화적입니다. 지문에서 대놓고 '가장' 협화적이라고 강조한 완전1도는 필히 확보하고 완전4도가 완전5도보다 덜 협화적이라는 것은 확보

가 가능하면 확보하고 가는 방식으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정말 사소한 팁

이건 정말 사소한 습관이지만, leet나 수능같이 잘 완성된 글에서는 **조사, 접속사, 강조** 등 어떤 부분도 허투루 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가장 협화적**'이라고 대놓고 지문에서 강조를 해줬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음정은 협화음정이기는 하나 완전음정보다는 덜 협화적이다.

불완전음정과 협화음정 완전음정의 관계를 제시해줬습니다. 지문에서 음정간 협화도 순위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협화음정 < 불완전음정 < 협화음정**이라는 음정의 **협화도 순위**를 이해한 상태로 독해가 진행됐어야 합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직적인 음향**보다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선법 음악**이 발달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직적 음향보다는 수평적 선율을 중시하는 선법 음악이 발달했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선법 음악이 발달했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선법 음악이 무엇인지(수직적 음향보다는 수평적 선율 중시)라는 선법 음악의 개념까지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선법 음악은 음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위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선법 음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법 음악은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며 선율과 선율 사이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위적 개념에 근거했습니다. 이렇게 선법 음악(개념어)의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 우리도 선법 음악의 개념은 이해가 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용어

지문에서 대놓고 선법 음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선법 음악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해주는 정보는 문제 풀이에 직결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문 이해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독해 시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정리는 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선율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했으며, 그에 반해 그 선율들이 만들어 내는 수직적인 음향은 부차적이었다.

선법 음악이 발달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는 선율은 동등하게 중요하고 선율이 만들어 내는 수직적 음향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앞서도 수직적 음향보다 수평적 선율을 중시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같은 표현을 강조해주고 있으니 필히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한정된 분량, 반복된 말?

상식적으로 한정된 지문 분량에서 굳이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내용 이해에 정말 중요하거나, 문제풀이에 꼭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를 같다고 볼 수도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진술, 구체화 제시 이런 부분은 그 이유가 어떤든 결국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된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중세의 선법 음악에서는 완전하게 어울리는 음정을 즐겨 사용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음정만을 협화음정으로 강조하면서 불완전음정과 불협화음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했다.

앞서까지는 중세와 르네상스를 묶어 설명했는데 중세만을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선법 음악은 완전음정만을 협화음정으로 강조하고 불완전음정과 불협화음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했답니다. 이것은 '중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불완전음정인 3도와 6도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르네상스 시대와 중세의 차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중세는 불완전음정인 3도와 6도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완전음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한 중세와의 차이를 대놓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도 독해 시 필히 차이를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특히 16세기 대위법의 음정 규칙에서는 악보 (가)의 예가 보여 주듯이 음정의 성질에 따라 그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르네상스의 대위법 음정 규칙은 음정의 성질에 따라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가)의 예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음악적 배경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정도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합시다.

예를 들면 7도의 불협화적인 음향이 '매우' 협화적인 음향인 8도로 진행하기 전에 '적당히' 협화적인 음향인 6도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선법 음악**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음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제시된 단계적 진행을 예시를 통해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시에서 불협화 음향이 협화적 음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적당히 협화적 음향을 거치도록 한답니다. 즉 음정 규칙의 단계적 진행은 불협화적 음향 → 적당히 협화적 음향 → 매우 협화적 음향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지문을 읽을 때 수험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eet 나 수능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필한 지문들은 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줬으면 그렇게 제시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문제를 위한 글인 지문의 특성상 그 이유는 내용 이해 그리고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2도-3도-1도의 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도-3도-1도의 진행도 불협화적 음향 → 적당히 협화적 음향 → 매우 협화적 음향 순으로 진행된다는 말이겠죠? 한번에 이해가 가면 좋지만 2도-3도-1도의 정확한 순서를 기억하기 어렵다면 물어볼 때 돌아와서 확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한편 불완전음정 3도가 완전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되면서 **'화음'**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이다.

불완전음정 3도가 완전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되면서 '화음'의 개념이 출현했는데 이것은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음정, 화음, 선율과 화성이 핵심에 직결되는 정보임을 확보했습니다. 그 상태로 화음은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이라는 걸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예컨대 <도-미-솔>을 음정의 개념에서 보면 <도-솔>, <도-미>, <미-솔>로 두 음씩 묶은 음정들이 결합된 소리로 판단되지만, 화음의 개념에서는 이 세 음을 묶어 하나의 단위, 곧 3화음으로 본다

화음은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이라 했습니다. 즉 <도-미-솔>을 이전에는 두 음의 결합으로 끊어서 봤지만 음의 결합을 세 음으로 확장한 화음의 개념에서는 <도-미-솔>을 하나로 묶어 인식했다는 것으로, 결국 앞선 말을 구체적으로 재진술해준 것입니다.

tip - 진짜 정보량이 많거나, 많다고 느끼거나

지금 앞선 화음의 개념을 예시로 풀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앞 내용을 날려 읽고, 각 부분을 파편적으로 읽으면 어떨까요? 정보량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겠죠?. 실제로 이 지문은 제시된 정보량 자체는 많이 없지만, 핵심을 당겨 읽으며 독해하지 않고, 재진술을 인식하지 않으며 파편적으로 독해를 이어나가면 상당히 정보량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정보량 자체가 많아서 어떻게 읽든 정보량이 많은 지문도 있지만, 이런 지문처럼 체감 정보량과 실제 정보량이 다른 경우는 평소 독해 습관에 따라 느껴지는 정보량 차이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음의 구성을 한 단위로 취급하는 3화음에서는 맨 아래 음이 화음의 근음(根音)으로서 중요하며, 그 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

음의 결합을 세 음으로 확장한 화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아래 음 = 근음이고 근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답니다. 맨 밑에 있는 음으로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는 것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또한 이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 장3도인지 단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3화음, 단3화음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면 완전5도 <도-솔>에 장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 장3화음'이며, 단3도 <도-미^b>을 더한 <도-미^b-솔>은 '도 단3화음'이다.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 장3도이면 장3화음 단3도이면 단3화음으로 구별하고 그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예시 역시 독해 시 정확하게 확보하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되,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화성적 음향이 발달해 3화음 위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위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화성적 음향이 발달해 3화음 위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7화음이 생긴답니다.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라네요. 3화음 위에 3도를 더 쌓으면 7화음이 된다는 정도를 이해하고 독해를 이어갑시다.

조성 음악은 이러한 화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한 것이다.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는 양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가 등장하였다.

르네상스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은 화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변화는 복합층의 다성부 구조 쇠퇴 →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 등장입니다. 변화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며, 선율과 화성은 우리에게 핵심에 직결된 정보입니다. **필히 다성부 구조 쇠퇴 →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 등장이라는 변화를 확보한 상태로 독**

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코멘트

여기서 다성부 구조 = 두 개 이상의 선율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위적 개념에 근거한 것. 이라는 말을 확보하면서 독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다성부 구조가 무엇인지 확인하거나, 최소한 문제 풀이 시에는 다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평적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조성 음악과 같은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해 만들어져 수평적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답니다. 즉 수평적으로 보이는 선율이라도 그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은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조성 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 한다. 말하자면 화성은 화음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만들어 내는 맥락을 뜻한다.

조성 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 한답니다. 화음들의 연결 = 화성이라는 개념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악보 (나)가 보여 주듯이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악보 (나)를 보면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 역할을 한답니다. 악보를 통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면 좋지만, 배경지식이 없어 그것이 어렵다면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 역할을 한다는 제시된 사실 그대로 납득 정도는 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이 된다.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도를 중심으로 5도 위 솔, 5도 아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 솔이 딸림음(5도 위) 파가 버금딸림음(5도 아래)가 된답니다. 제시된 정보를 간단하게 연결정도만 하며 있는 그대로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해서 3화음을 쌓으면 주요 3화음이 되고 각각 으뜸, 딸림, 버금딸림화음이 되고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답니다. 이 역시 정보를 연결(도-으뜸, 솔-딸림, 파-버금딸림)정도를 연결하고 독해를 마무리했으면 충분합니다.

총평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음악에 관련된 배경지식이 없다면 지문에 나오는 용어, 관계, 적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돌아올 줄 아는 것도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구체적 예시(수치)가 많이 나온 지문으로 지문 독해 시 이것을 전부 확보하며 독해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상향에 가깝습니다.

기출 분석 시 최대한의 이해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부분, 돌아올 것을 감안하는 분석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4일차 문제 해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⑤

조성 음악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며 수평적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합니다.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주요 3화음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데 화음의 개념에 근거한 선율이란 조성 음악을 칭하며 화성적 맥락을 통해 선율 안에 내재된 주요 3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한 음의 중복인 완전 1도가 가장 협화적인 음정입니다. 즉 <도-솔>가 <도-도>보다 덜 협화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 중세 시대는 완전음정만을 협화음정으로 강조하였지만 르네상스 시대는 불완전음정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르네상스 시대보다 중세 시대에 협화적인 음정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③ : 2도-3도-1도의 진행은 불협화적 음향 → 적당히 협화적 음향 → 매우 협화적 음향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음정의 협화도는 불협화음정 < 불완전음정 < 협화음정입니다. 즉 불협화음정-불완전음정-완전음정의 단계적 진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④ :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 장3도인지 단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3화음, 단3화음으로 구별합니다. 즉 장3화음과 단3화음은 근음 위에 쌓은 3도 음정의 성질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코멘트

단순 내용 일치지만 단순 지문 내용을 복붙한 선지들은 아닙니다. 정답 선지는 정보 간 연결이 필요했으며, 나머지 선지는 돌아올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2. 선법 음악에서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 ②

선법 음악은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위적 개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 음악에 와서는 다성부 구조가 쇠퇴했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대위적 양식에서 추구하던 선율들의 개별적인 독립성이 쇠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르네상스 시대의 선법 음악에서도 불협화적 음향 → 적당히 협화적 음향 → 매우 협화적 음향 순으로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선법 음악에서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에서 음의 재료가 협화적 음정에서 불협화적 음정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 선법 음악은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했고, 조성 음악은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합니다. 즉 수직적인 음향을 강조하던 것이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닌 수평적 선율에서 수직적 선율을 중시하는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④ : 조성 음악에서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선법 음악에서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로 3도 관계의 화음들이 근본적인 화성 진행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 조성 음악의 관점에서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다. 즉 선법 음악에서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를 화성은 선율의 결과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코멘트

'변화'는 독해 시 항상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3. <조건>에 따라 <보기>의 곡을 작곡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분석

선율은 도 으뜸음 + 한 마디 하나의 화음

⇒조성음악(화성적 맥락 사용되었으니)

'도'가 으뜸음이면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

답 ⑤ (답이 이해가 안 되면 1~4번 선지 해설을 먼저 읽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마디의 첫 음은 솔, 도, 레, 미입니다. 그런데 ㉠부분은 으뜸화음으로 근음은 도, ㉡은 버금딸림화음으로 근음은 파, ㉢은 딸림화음으로 근음은 솔, 마지막은 으뜸화음으로 근음은 도입니다. 즉 각 마디의 첫 음은 그 마디에 사용된 화음의 근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수평적 선율 안에는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합니다. 즉 솔, 도, 도 가 사용된 ㉠의 화음은 <도-미-솔> 으뜸화음이며 '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 ㉡은 도, 라, 도, 파, 미로 이루어져있고, 이는 <파-라-도>위에 3도 거리에 있는(미)를 쌓아 7화음을 만든 것으로 ㉡에는 <파-라-도-미>의 버금딸림7화음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 ㉢은 레, 솔, 파가 사용되었고 이는 <솔-시-레>에 3도 거리에 있는 파가 사용된 것으로 <솔-사-레-파> 딸림 7화음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 ㉣은 솔, 도, 도 <도-미-솔> 으뜸화음으로 볼 수 있고, 미, 솔, 솔, 미, 도 의 화음 역시 사용된 것은 도, 미 솔로 으뜸화음 <도-미-솔>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코멘트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 부분에서 화음을 찾는 것이 핵심포인트였습니다.